



한 알의 밀씨



블레즈 파스칼

김진태 그레고리오 신부(본원 원장)

“확신,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지난 6월 19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블레즈 파스칼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여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이라는 사목교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황님은 말합니다. 파스칼은 분명히 “확신, 확신, 느낌, 기쁨, 평화” 하며 하느님을 깊이 체험한 1654년 11월 23일 밤 이전에도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그는 하느님이 최고선이심을 알고 있었다고. 그에게 결여되어 있던 것, 그가 지금 찾고 추구한 것은 지식(knowledge)이 아니라 힘(power)이었고, 진리(truth)가 아니라 힘찬 기운(strength)이었다고. 이 힘찬 기운이 은총에 의해 그에게 주어졌고,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기쁨 속으로 인도되었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서 힘차게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콜로 1, 29) 오늘날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도 그런 확신, 그런 기쁨, 그런 힘, 그런 기운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 노력으로 얻어 누릴 수 없으니 애가 탑니다. 기쁘지 않은데 논리적 추론을 통해 기쁘게 할 수 없고, 확신이 없는데 신앙의 확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파스칼 같은 “확신, 확신, 느낌, 기쁨, 평화”, “기쁨, 기쁨, 기쁨, 기쁨의 눈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야기를 생각합니다.(6, 6-11)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이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일 것입니다. 파스칼 같은 주인공다운 이름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그냥 그곳

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는 구원해 달라고 외치지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뿐, 그저 그분 주위를 항구하게 맴돌고 있었을 뿐, 울지도 안 울지도 모르는 그분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팽팽히 긴장된 분위기 한가운데로, 서로 잡아먹으려 노려보는 살벌한 인생살이의 한복판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고. 손을 뻗으라고! 일어나라시면 일어나고, 가운데 서라시면 가운데 서고, 손을 뻗으라시면 손을 뻗고, 그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히 따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회의 힘 있는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예수님 말씀에 순응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오그라든 손을 펴는 것이었는지라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손은 치유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나에게 내 존재의 사회적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으니까요. 요한 5장에 나오는 벳짜타 못가의 38년 병자가 치유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어떤 수난을 당했는지, 요한 9장에 나오는 태생 소경이 치유받고 나서 권력자들에게 어떤 심문을 받고 심지어 부모까지 소환되어 조사 받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 걸을 떠나지 않고 끊임 없이 맴돌 때, 그분 가르침의 말씀에 항구히 귀기울일 때, 어느 순간 그분의 소리가 들려왔고 오

그라든 손을 펴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은총이라고밖에 달리 어떻게 부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힘찬 그리스도의 기운을 말씀하시는 바오로 사도는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은총이었다고.

신앙의 확신과 기쁨에 대해 말씀하시는 교황님은 말합니다. 그것은 은총이라고.

“확신, 확신, 느낌, 기쁨, 평화”, “기쁨, 기쁨, 기쁨, 기쁨의 눈물”이라고 “메모리알”에 적어놓은

파스칼은 말합니다. 그것은 은총이었다고. (“은총의 해 1654”)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은총이었다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일 것입니다. ‘내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총을 마음에 꿈꾸며 늘 그분 주위를 맴돌았듯이, 가톨릭교리신학원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향구히 그분 주위를 맴돌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인 듯하다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제55회 ‘밀씨 축제’ “은 세상이 주님께 환성 올려라”



임숙희 레지나
엔아르케성경삶연구소 소장

우리는 부르심받은 삶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에 불리웠다고 가르치는 것일까?” 제가 바오로 영성을 가르치면서 선택하는 주제들은 모두 이 질문과 연결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들은 것을 자신이 직접 실험해보고 통찰하게 된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바오로에게서 알고 싶은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십자가를 담아내는 삶(cruciformity)에 불리웠습니다. 9월 14일은 교회 전례력으로 ‘성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선하심, 의로움, 자비로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만 ‘하느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용어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1세기에 모욕과 수치의 대상인 십자가가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의 사랑이 찬란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특별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순종을 감내하면서 십자가로 가는 그분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본회퍼)입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불리웠습니다. 바오로에 따르면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학은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바오로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느님 ‘압바’에게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아버지로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 하느님 자녀로서 우리의 입양은 현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보고 성장시키고 동반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 삶의 역동적인 원칙이며,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친교

(코이노니아)를 맺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생명을 전달합니다. 자유와 그리스도교 윤리의 원칙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도록 불리웠습니다. 2016년 10월 16일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시성된 삼위일체의 엘리사벳 성녀(1880-1907)는 사도 바오로의 서간을 읽다가 “하느님께서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에페 1,12)라는 말씀이 자신이 평생 살아야 할 소명을 확신했습니다. 이후에 성녀는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영광의 찬미’라는 말을 사용했고 자신을 바오로의 제자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바오로는 사실 하느님께 깊이 몰두한 사도였습니다. 다마스쿠스 체험 전에 바오로는 열렬한 바리사이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 체험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와 사도직, 봉사들은 모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오로 서간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에 불리웠는가?”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이미 살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것, 실천하지 못한 것, 감사드리지 못한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바오로가 걸어간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하느님 자녀로서 충실하게, 기쁘게,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은희 스킨스틱사
교리 1학년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맑은 웃음소리와 싱그러운 기운을 찾아,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면, 언제나 빛을 내며 반갑게 맞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리신학원 1학년 끈끈한 동기들입니다. 아침을 못 먹은 동기가 있을까 싶어 조용히 간식을 준비해주고, 복잡하고 힘든 일도 서로 나눠서 하다 보면 별것 아닌 일이 되어 버리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나기 전 저는 교리신학원 진학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선 2년의 교육과정과 적지 않은 학비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매일 왕복 4시간을 통학할 자신이 없었고, 새벽 7시 전에 집을 나와 오후 6시쯤에나 집에 들어가는 일상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 다. 게다가 갱년기 증상으로 몸은 힘들 때였고, 사춘기 아이와의 신경전, 큰 아이 재수를 지켜보던 시간들이 마음을 돌덩이처럼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 “이제는 돈을 벌러 나가야 하는 때 아니냐.” “돈도 안 되는 신학원 공부를 왜 하느냐.”는 가지 같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저는 매일미사를 하며 교리신학원 공부를 하는 것이 하느님 뜻에 맞는 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잘 할 수 있을 거라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고 말 해주었습니다. 교리신학원 시험 면접일에 큰 아이는 자신 수능 날 배웅해준 것처럼 자신도 어머니를 배웅해 주겠다고 함께 해주었고, 딸아이도 커피 쿠폰을 보내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응원에 저는 뽀빠이의 시금치를 먹은 듯 힘이 솟았고,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

힘을 내보라는 응답을 주셨고,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1학년의 꽃 같은 시간을 기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고, 기억력도 떨어져 공부가 힘들기도 하고, 저녁마다 잔뜩 쌓여 있는 집안일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말 하고 싶고, 알고 싶은 공부를 하는 지금 이순간이 참 소중합니다.

언젠가 열심히하신 동기 수녀님께서 “스콜라 자매님은 수업 시간마다 공부를 즐기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제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든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던 터라 참 감사한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각자 다양하고 어려운 상황들 안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 동기들과 서로 격려하며 나눈 이야기가 참 몽클했습니다. “우리 교리신학원 오가는 먼 길을 주님께 매일 봉헌하고, 지금 각자가 처한 어려움 역시 교리신학원 과정의 필수 과목인양 받아들이며 잘 이겨내보자.” 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뽑아 세우신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15, 16)



박문식 스테파노
교리 2학년

“구원의 양과 한 뿌리”

“그런데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수호천사는 어떤 양과를 찾아낼지.”

옛날에 심술궂고 인색한 아줌마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한 번도 선행한 적이 없어 지옥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수호천사는 아줌마를 구해 달라고 하느님께 청했습니다. 하느님은 “아줌마가 생전에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라도 했다면 고려하겠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호천사는 아줌마의 과거를 살살이 뒤져 양과 한 뿌리를 거지에게 베푼 일을 찾아냈습니다. 하느님은 아줌마에게 그 양과 뿌리를 붙잡고 지옥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수호천사는 양과 뿌리를 아줌마에게 건넸습니다. 수호천사가 아줌마를 거의 다 끌어올렸을 무렵, 불바다 속 다른 사람들이 아줌마의 발에 달라붙었습니다. “나도 갈 거야!” “나도 같이 가!” 그러나 아줌마는 그들을 매몰차게 걸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양과야.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고.” 그녀가 발버둥 칠 때 양과 뿌리가 끊어져 버렸고, 아줌마는 다시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우화를 읽자니 보잘것없는 양과 한 뿌리의 선행조차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위안을 얻습니다. 그 정도라면 우리는 꽤 희망이 있습니다. 반면 평생 선한 삶을 살고 천국에 온 다른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불공평합니다. 목숨까지 버리고 온 사람도 있을 터인데 양과 한 뿌리 정도의 선행으로 천국에 온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양과는 물질이 아닌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심술궂은 아줌마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은총을 부여하실 뿐, 은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아줌마의 몫이었습니

다. 그런데 아줌마는 하느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양과 한 뿌리 선행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양과는 내 것이야,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야!”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은 다른 이를 발로 걷어차았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녀는 은총을 자신의 소유 개념으로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면 초라한 양과 한 뿌리에도 대단한 선행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만 믿는 이들은 ‘은총’의 고귀한 의미를 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은총의 왜곡도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한 은총’ 과 ‘내가 얻고 싶은 은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은총의 이해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은총의 이해는 곧 올바른 하느님의 이해입니다. 다시 말해 은총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총은 무상성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은총의 주도권은 하느님에게 있다.” 지난 학기 은총론에서 배운 개념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머물러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고 석 도미노
종교 2학년

밀씨들의 축제

‘밀씨가 하늘에서 떠돌다가 바늘에 꿰힌다’

“자매님~ 음을 정확히 해 주세요.” “형제님 쉬었다 다시 연습해요.” “이건 이쪽에 붙이는 건가요?” “아니요 약간만 밑으로 내려주세요.” “제가 만들어 올게요.” 등등 밀씨 축제를 앞두고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서로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참여뿐 모습들이다. 그야말로 밀씨들의 아우성이다.

가톨릭교리신학원은 매년 5월이면 축제를 연다. 바로 ‘밀씨 축제’이다. 교리신학원 재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선후배가 ‘밀씨’가 되어 물품기증과 재능기부로 축제를 준비하며, 사랑도 우정도 기쁨도 나누는 소박한 만남의 장인 셈이다. 늘 만나지 않았어도 늘 안부를 묻지 않았어도 축제때는 하나 되어 형제요 자매가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한다.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기대를 갖게 되었다.

밀씨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나 오랫동안 찬양사도로 활동하였던 경험으로 버스킹을 하게 되었다. 예전에 읍지로 지하철 내에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버스킹을 했었는데, 그 당시 나를 노숙하시는 분들이 ‘개신교 목사님’으로 부르곤 했었다. 선배 찬양사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했던 찬양봉사와 노상전교회에서 활동했던 이력들이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 같다. 노래를 선곡하고 밴드와 연습을 하면서 기대감으로 설레었다. 버스킹을 하는 동안, 많은 선후배들과 수도자들의 뜨거운 호응에 모두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노래하는 중에도 음식을 갖다 주셨고, 소식이 끊어졌던 선배님도 만나게 되었다. 이산가족 상봉처럼 반가웠고 기뻐다. 또한, 학우 중

에 한 명이 무대 쪽으로 오더니 줌마스타일의 막춤을 추어서 모두 한바탕 웃음으로 흥겨운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가톨릭교리신학원 밀씨 축제의 주인공은 당연히 ‘밀씨’다. 우리들이 그 ‘밀씨’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밀씨가 하늘에서 떠돌다가 바늘에 꿰힌 것처럼 세상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만났고, 필연과도 같은 인연으로 하느님께 꿰힌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세상의 밀알이 되어 썩어진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사도로 불릴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우리를 ‘밀씨’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

“저는,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이 저에게는 좋습니다.”(시편 73, 28) 이 말씀처럼 하느님과의 엄청난 인연으로 좋은 일만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산다는 것이 이리도 좋을 수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언제일지 모르나 또 다른 밀씨를 세상에 퍼뜨릴 날을 기대해 본다.



사랑으로 통하는 신앙의 열매

『우리들의 졸업 이야기』

◆ 2022학년도 졸업 감사미사 봉헌



통신신학교육과정 졸업 감사미사가 4월 22일(토), 가톨릭교리신학원 경당에서 봉헌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했던 노력의 과정을 기쁘게 마치고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신학원은 올해 244명의 통신신학교육과정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 ‘함께’ 여서 더 큰 은총



주임 신부님이 교중미사 때 많은 본당 교우들 앞에서 교리신학원 졸업증서를 다시 수여한 본당이 있습니다. 5명이 함께 졸업한 서울 수색 본당입니다.

6년의 시간을 함께 공부해온 5명의 졸업생에게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과 같은 졸업증서와 더불어 수도자를 비롯해 많은 신자분의 축복과 축하를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타성에 젖어들 수 있는 신앙생활에 신학 공부는 지침서 같은 역할로 방향을 잡아 주었습니다. 6년 동안 든든하게 옆에 있어 준 동료들 덕분에 버티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는 졸업생의 소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졸업생 : 김호근 필로메노, 김정웅 이시도르, 강미숙 루치아, 유미경 수산나, 김도순 미카엘라)

◆ 한 졸업생의 졸업 소감 : 6년의 값진 선물

“지난 6년 동안 통신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어렵듯이 알던 것들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방학 때 서울에 올라가서 직접 대면 수업하면서 느끼던 감흥은 지금 생각해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열정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시간을 선물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동계·하계 연수회는 뜨거웠고, 6년의 과정이 길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장한 것 같아 흐뭇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진리를 더 깊이 대할 수 있었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삶에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분주한 세상살이 속에서 창조주를 생각하고 신학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내 삶에서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 귀한 배움을 이어가길 바라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응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김광혜 요셉피나 2017-0005)

『2023학년도 하계연수회』

2023학년도 통신신학교육과정 하계연수회가 6/24~25, 7/1~2, 2차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국내외 각 지역에서 67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하였고, 1학기 동안 공부한 과목을 대면 수업을 통해 정리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계연수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교수 신부님, 수녀님의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통신으로만 하는 학습의 어려움과 궁금증을 다소 해소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신신학교육과정 목상글』

◆ 1학년 영성신학입문

“오랜 시간의 냉담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참모습을 깨닫기 위해 얇은 종이조각과도 같은 신앙인으로서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통신신학교육과정에 등록하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얇’이 그리스도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며, ‘얇’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진리와 참사랑에 조금씩이나마 다가감을 느끼며 때로는 환희의 기쁨도 알게 되고, ‘고통’이라는 것이 저의 삶에 끼치는 신비감도 잠깐씩이나마 느끼게 하여 줍니다. 늘 기도와 실천, 목상을 습관화하여 단계별 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완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박상률 스테파노 2023-0089)

◆ 3학년 시원종말론

“아름다운 5월 성모님의 달을 보내며 창조에 관해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악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에 공

감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다는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생태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혜숙 요셉비아 2021-2013)

◆ 4학년 성사론

“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틀림없이 전달되고,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총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성사의 개념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 기쁨은 ‘확신에 찬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안에 성사로서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새롭게 눈뜨게 되고 가슴 설레게 하는 신학적 성찰이 많은 과목이었습니다.”

(임순이 빈첸시아 2020-2007)

◆ 5학년 신론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을 공부하면서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 마음이 기억과 이해와 사랑의 모든 노력과 더불어 창조주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하나님을 지탱하는 이미지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기억, 이해, 그리고 의지 셋이 있다. 그러므로 셋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삶이 있다. 마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있다. 따라서 세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주체가 있는 것이다.’라는 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영자 임마폴라따 2019-2009)

◆ 6학년 은총론 사목신학

“어느덧 벌써 6학년으로 접어들어 한 학기를 마치게 되고, 그래도 설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공부하면서도 매번 한달 한달 지날 때마다 지나고 나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책이 있어서 다시 한 번씩 반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더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하여 이끌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숙 아녜스 2018-0244)

『평가자의 격려와 응원의 글』

“저 역시 신학교에 입학한 후 학업적인 부분이 저의 발목을 여러 번 잡았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사제가 되고자 이 길을 시작했지만,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매번 마주하게 되고 이런 내가 사제가 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이사 43, 1)입니다. 매번 힘들 때면 이 말씀은 저에게 처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한 순수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주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결과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고자 했던 그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쁨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연구하려다가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알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지식보다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신학편지 목상글』

◆ 3월 A과정 시편에 나타난 전례와 음악

“일중독이었던 저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방문을 자주 못 했었고, 어머니께서 병환중일 때 일을 중단하고 곁에서 6년을 머물며 간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일중독은 멈추었고, 일보다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아픈 이를 돌보는 직종으로 변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바른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한덕훈 신부님의 ‘어머니 당신께’ 라는 곡의 가사와 희망 어린 멜로디를 통해 자녀들인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상황, 매 순간 속에 우리의 어머니들께서, 참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어 봅니다. 아멘.”

(김영범 파스칼 2023-5047)

◆ 5월 A과정 다섯 번째 복음사가가 들려주는 수난기

“아무리 생각해도 ‘신학편지’ 과정을 등록하고 공부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매달 평소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맛보게 되는 기쁨이 큼니다. 이달엔 마태 수난곡을 틈나는 대로 듣고 있는데 한글 자막도 있어 다행입니다. 그중 베드로의 아리아 ‘Erbarme dich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히 카운터테너 Tim Mead는 압권입니다.”

(이미나 스테파니아 2023-5041)

◆ 6월 A과정 존재의 빛과 아름다움

“예수님의 복음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작은 이들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존귀함을 알아채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장소입니다. 그들 안에서 그분의 빛과 생명을 느끼며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반사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홍현숙 베로니카 2019-5016)

◆ 9월 A과정 구약성서 말기의 죽음 이해

“죽음에 대해서는 물리적이고 세속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 뜻에 맞는 현재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모님을 만나야 한다고, 평생 뉘끼를 바라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준비가 아닐까 합니다. 문득 죽음은 떠나간 사람에게도, 남겨진 사람에게도 잠시의 이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다 한 아쉬움, 사무치는 그리움을 부활·영생·불멸의 희망으로 견딜 수 있는 기쁜 헤어짐의 시간, 이 시간을 평온하고 감사하게 보내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 성모님과 먼저 간 사람을 전부 만나게 될 때를 상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마냥 행복합니다. 그렇기에 삶은 죽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삶은 죽음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최유림 비비안나 2022-5005)

◆ 6월 B과정 모모의 철학

“개인적으로 이번 ‘모모의 철학’ 신학편지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잠깐의 실직 시기를 보내는 지금, 잠시 멈추고 느리게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모모 책도 빌려서 읽게 되는군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달간 계획(의도)되지 않게 주어진 시간 덕분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더 가까워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보살핌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얽히고설켜 뜻밖의 위로와 치유로 작용하는 체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말씀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이 은총의 시기 동안 하나님 안에 더욱더 오래 머무르며 말씀과 신학공부, 묵상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천에 더욱 매진해보고자 합니다.”

(정찬호 스테파노 2014-5086)



그림 : 교리1 이은숙 마리미엘

통신신학교육과정

- ◎ 답안접수 마감 : 2023. 11. 20(월)
- ◎ 동계연수회 일정 :
 - ◇ 1차 : 2024. 1. 6(토) ◇ 2차 : 2024. 1. 7(일)
 - ◇ 3차 : 2024. 1.13(토) ◇ 4차 : 2024. 1.14(일)
- ※ 연수회 상세 일정은 12월 초 공문을 통해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신 학 편 지

- ◎ 답안접수 마감 : ◇ 11월 : 2023. 11. 27(월)
- ◇ 12월 : 2023. 12. 27(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골로 2, 7)

■ 2023년 제8대 회장단 선출

2023년 3월 18일 신년개막행사 및 정기총회가 있었고,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단을 선출, 임명하였다. 제 8대 회장단으로 회장 채기병 루도비꼬, 부회장 허정자 세실리아, 박종옥 요안나, 사무국장 오영호 가브리엘 그리고 감사, 상임이사, 기획총괄팀장, 재정팀장, 선교팀장, 교육홍보팀장, 재학생협력팀장이 임명되었다.

■ 정기 이사회(1, 4, 8, 11월)

▷2023년 4월 17일 17시 '성북동기도의집'에서 정기 이사회를 했다. 회장단, 이사, 사무국장등 13명이 참가하여 밀씨 축제 후원 및 참가 방법 등을 논의했다.

▷2023년 8월 21일 17시 '성북동기도의집'에서 정기 이사회를 했다. 회장단, 이사, 사무국장등 12명이 참가하여 '동문의 날' 행사로 성지순례 장소와 날짜를 논의했으며, 10월 21일에 은이 성지에서 미리내 성지까지 도보 순례를 가기로 했다.

■ 밀씨 축제 참석

5월 13일 토요일에 가톨릭교리신학원에서 주최하는 밀씨 축제에 동문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재학생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재학생들로부터 식권을 받아서 졸업생들에게 배부했다. 행사 시간 동안 70여 명의 동문들이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재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했다.

■ 졸업생 활동 사항 조사

8월 말에서 9월 초에 걸쳐서 가톨릭교리신학원 교리교육학과, 종교교육학과 졸업생들의 선교사 및 교리

교사 활동을 조사했다. 모든 졸업생들의 활동 상황을 조사할 수는 없었으나 많은 분들이 협조하여 1차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동문들은 각 본당의 교리교사나 예비신자 나눔 봉사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고, 교도소, 군대, 경찰 등에서 교리 및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북방 선교회, 초중고등학교 및 본당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 동문의 날 행사 계획

매년 10월에는 총동문회에서 동문의 날 행사로 성지순례를 한다. 올해는 10월 21일에 은이 성지에서 미리내 성지까지 도보 순례를 했다. 이곳은 김대건 신부님의 성장과 활동 장소였고, 신부님의 시신 운구로의 일부 구간이었으며, 신부님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더욱 뜻깊은 성지순례가 되었다. 은이 성지에서 미사 및 해설, 미리내 성지까지 신덕 고개, 망덕 고개, 애덕 고개를 넘으며 도보 묵상을 하고 미리내 성지에서 김대건 신부님 묘소 참배를 했다.

■ 재학생 단체 설명회

11월 9일에 교리교육학과와 종교교육학과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단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리교육학과는 오후 4시에, 종교교육학과는 오후 6시에 가톨릭교리신학원 2강의실에서 각 선교 단체나 선교지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배 선교사, 신부님들이 홍보한다. 재학생들의 진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태국 교리교육시찰단 본원 방문



지난 2023년 9월 6일(수) 한국의 교리교육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 태국에서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 교리교사 등 30여 명의 교리교육 시찰단이 본원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가톨릭교리신학원의 연혁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개와 교리교사 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졸업생 선교사(교리교사)들의 활동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원 시설을 둘러보았다. 방문단들의 선교사(교리교사) 양성 과정에 대한 관심 어린 질문들이 이어졌다.

교 내 소 식

2024학년도부터 주간 수업은 11:00부터 15:40분까지 진행됩니다

- ◆ 졸업생 단체 설명회 ▶ 11월 9일(목)
- ◆ 2학기 종합 및 평가 ▶ 12월 11일(월)~15일(금)
- ◆ 2023학년도 2학기 종강 미사 및 선교사 청원 예절
 - 종교교육학과 : 12월 4일(월)
 - 교리교육학과 · 신학심화과정 : 12월 7일(목)
- ◆ 동계방학 ▶ 12월 18일(월)~2024년 2월 29일(목)
- ◆ 2023학년도 졸업식
 - 대 상 : 교리 64회, 종교 54회, 심화 4회
 - 일 정 : 2024년 2월 17일(토) 14:00
 -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성당
- ◆ 2024학년도 1학기 개강
 - 2024년 3월 4일(월)
- ◆ 2024학년도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교리교육학과, 종교교육학과 : 2024년 3월 4일(월)
 - 신학심화과정 : 2024년 3월 5일(화)
- ◆ 2024학년도 1학기 개강미사
 - 종교교육학과 : 3월 4일(월)
 - 교리교육학과 · 신학심화과정 : 3월 7일(목)
- ◆ 후원회원 및 은인을 위한 기도의 날
 - 매월 첫 번째 목요일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http://ci.catholic.ac.kr>

신학교육과정 (교리, 종교, 심화) ▶ 2023년 12월 1일(금)~2024년 1월 16일(화)
 통신신학교육과정 (통신교육, 신학편지) ▶ 2023년 11월 13일(월)~2024년 2월 16일(금)

가톨릭교리신학원 후원회원 모집 안내

가톨릭교리신학원에서는 본원의 발전을 위해 정성과 사랑을 나눌 후원회원 분들을 환영합니다.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물론 교리신학원에 관심 있는 분이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납부하시는 후원금은 본원의 발전 운영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후원회원이 되시면...

1. 매월 첫 목요일 공동체 미사 때 은인들을 위한 감사미사와 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연미사를 봉헌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면 『한 알의 밀씨』를 보내드립니다.
3.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본인 명의로 발급 가능합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월 10,000원 이상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 경리과 02-747-8501, 내선 5번)
 국민은행 031-01-0422-625 / (재)천주교서울대교구

◆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 04. 01~ 09. 30)

강미영	강철민	곽현미	김병호	김순덕	김애라	김애련	김연창	김영길	김영임	김정현	김최숙
김춘연	김효숙	박명주	박영숙	박인구	박진용	백길선	백승은	서영희	석혜옥	유종욱	윤종우
이근창	이미옥	이상국	이상행	이선근	이선자	이승덕	이영아	이용진	이윤희	이현규	이현영
장금자	전미경	전숙자	전해자	전광숙	정명선	정명희	정성완	정성임	정훈채	주순철	최범균
한정식	홍경희	홍원배	황애현	성안나	장학회	임승욱	윤혜원	SEOHEEJIN			

* 익명의 졸업생께서 1,000,00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 주소지가 변경된 분들께서는 본원 교무과 Tel. 02-747-8501(내선 2번)으로 연락 바랍니다.